

世界 油脂 및 油粕類 市況

— 評價와 短期展望 —

F A O

머 리 말

油脂 및 油粕類의 市況과 短期전망에 관한 이 평가서는, 各國政府의 行동을 필요로 하는 예산 문제점을 사전검토에 제공하기 위해서 部會개최에 앞서 배포한 것이다. 단기전망이 가진 政策的意義는 部會에서 議題 第IV項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토의할 때에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최신의 世界事情과 전망의 간단한 覺書는 部會의 회의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I. 要約 및 主要結論

油脂 및 油粕단백질을 둘러싼 현재의 世界市況과 단기전망에 대해서는 1991년 3월에 얻어진 정보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 1991년에 있어서 油脂의 세계생산은

2% 增加한 8,150萬톤—증가율 및 絶對水準은 장기추세 以下—에 達할 것으로 豫測된다. 世界의 油粕생산은 5,310萬톤으로 豫측되고 있으나 이것은 前年수준에 가까운 것이다. 1991년초에 수확된 南美의 大豆作은 作付面積 감소때문에 줄어들었고 또한 美國의 생산도 약간 감소되었다. 1991년의 生産狀況을 나라別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바라기 種實생산이 作付面積 감소때문에 감소되었고, 日氣不順때문에 소련에서는 해바라기 種實생산이, 印度에서는 落花生생산이, 폴란드에서는 油菜생산이 激減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코브라生産이 감소할 것으로 豫측되고 있다. 그런데도 EEC, 캐나다, 인도에서는 油菜, 中國에서는 모든 油糧種實, 또한 많은 나라에서 綿實이 대폭 증산된다고 추계되고 있다. 말레지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팜(야자)商品이 增産될 것으로 豫상되고 있다.

註: 이 資料는 1991年 6月 24日~28日까지 로마에서 開催된 商品問題委員會, “油脂에 關한 政府間 會議 第24次 會合”에 제출된 資料 일부를 번역한 것임(FAO CCP/91/8 April)

(나) 世界 油脂消費의 新장을은 廣域에 걸친 경기후퇴의 경향에 따라 1991년에는 3년 동안 계속 둔화하고, 장기적인 신장을 以下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消費量도 추세水準 이하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油粕消費는 1990년의 경우 전년의 감소에서 현저하게 回復되었으나, 그후의 신장은 다시 鈍化가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先進國에서의 給餌率이 이 이상 높아질 여지가 현시점에서는 限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油脂, 油粕類 어느 것이나 세계의 消費전망은 1991년에 있어서는 특히 不確實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世界經濟의 行방, 국제수지상 삼엄하게 制約되고 있는 國家-植物性油, 油粕의 주요 輸入國도 포함-에서 그 需要를 국내생산과 수입에 의한 공급으로 보충되는 정도이고, 나아가서는 페르시아灣岸지역이 정상적인 需要패턴으로 되돌아갈 시점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1991년에 있어서 현재의 生産에 의한 세계의 輸出可能量(즉, 在庫변동없이 價格은 평균적으로 1990년 정도로 가정한다)은, 油粕에 있어서는 거의 1990년의 輸出實績 수준이나, 油脂에 있어서는 2% 減少로 추정된다. 이제까지 作物增收의 결과로써 대폭적인 증산으로 나타난 것은 落花生과 油菜, 綿實산품 뿐이다. 輸出가능량이 격증하고 있는 것은 美國의 綿實油와 면실粕, 中國의 유채粕, 면실粕과 穡化生油 및 EEC의 油菜產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穡油의 1991년 輸出可能量은, 증산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수출실적을 下廻하고 있고, 이것은 1990년의 수출이 얼마만큼의 在庫를 허물고 輸出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된다. 같은 양상으로 캐나다產 油菜油

및 유채粕의 수출가능량도 역시 增産에도 불구하고 低下하고 있다. 大豆油의 세계輸出가능량은 前年 수출실적 對比 9%가 감소하고 있는데 한편, 大豆粕의 수출가능량은 겨우 3% 감소에 그치고 있다.

(라) 1991년에 있어서 世界 輸入必要量은 1990년의 수입실적에 比하여 油脂에 있어서는 2% 增加, 油粕에 있어서는 3% 증가된다고 推定된다. 무엇보다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주요輸入國에 있어서 기초적인 消費增加推計値는 各 國의 수입정책과 경제狀況-여전히 憶測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에 대한 假定에 의한 것이다. 油脂에 대하여 보면 印度와 소련이 推定되는 수입必要量の 증가에 있어서 壓倒적으로 높은 比重을 占하고 있으나 이것은 印度의 경우 전년의 필요량의 一部가 在庫를 털어서 充당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소련에서는 국내생산이 減少되었기 때문이다.

兩國의 수입필요량 合計는 各 國의 경제사정에 의하여 1人當 消費의 伸張이 鈍化한다고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激增한다고 推定된 것이다. 그리고 墨西哥는 凶作때문에, 또 파키스탄은 근년에 있어서 大幅 消費의 伸張이 금후에도 계속한다고 假定하면, 수입필요량이 대폭으로 增加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單一國으로서 世界 最大의 輸入國인 中國에서는 油糧種實生産이 눈에 뜨이게 回復되었기 때문에 同國의 推定수입량은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EEC의 輸入必要量은 1990년의 수입 實績에 比하여 微感할 것으로 추정된다.

油粕에 대하여 살펴보면 EEC 및 韓國에서 的 消費가 계속 新장하고 있음으로, 특히 1991년에 있어서는 各 國의 수입必

要量은 1991년의 수입實績에 比하여 增加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의 油粕수입정책은 1990년의 輸入激減에 비추어 더욱 不確實해지고 있다.

(마) 美달라 表示에 의한 油脂의 國際市場價格은 세계在庫가 감소한 관계도 있어, 1990년의 제4/4分期에는 上昇傾向을 보였다. 1991년초에 FAO指數로 測定한 綜合市場價格水準은 前年對比 7%가 높았다.

그러나 油粕에 대하여 보면 價格은 一大影響力을 가진 소련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6%나 하락하였다. 인플레이션을 고려에 넣으면 油脂 및 油粕類의 달라價格은, 역사상 극히 低水準에 떨어지고 있다.

(바) 世界の 需給 推計値가 시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에 있어서 世界需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油脂나 油粕 모두가 각각 舊年產在庫를 털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油類에 대하여 보면 1988년에 축적된 膨대한 世界在庫量이, 소비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輕게되는 年度로서는 金년이 3년째가 된다. 그러나 1991/'92년도에 移越된 在庫量이 바닥 날 정도의 低수준에 떨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991/'92년도의 收穫量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判明되면 價格은 上向轉換을 하게 되어 점차 不安定性을 더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비需要가 充足되고 또 적정한 在庫가 유지된다고 하면 1991/'92년도의 世界생산을 大幅으로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 1991/'92년도 展望에 관한 초기 指標에 의하면 EEC에 있어서 油菜의 作付는 大幅 확대할 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世界の 綿作植付는 린트(조綿)가 高價이기

때문에 특히 美國에서 다시 擴大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印度와 소련에서는 작년에 日氣가 불순하였으나 金년은 平年정도의 기후라고 가정하면 油糧種實의 收穫量이 대폭 증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金년에 豐作이 되풀이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또 美國에서는 大豆의 경우 公式的인 作付意向調査에 의하면 作付面積의 증대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地作物과 對比하여 價格이 不利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면, 新農業法에 의하여 獎勵되고 있는 作物은 低位作物, 특히 해바라기種實 뿐이다. 그런데도 南美에 있어서의 油糧種實생산者-北半球에서는 1991년도 收穫이 끝난후에 과중하게 됨-, 北半球에서의 凶作 때문에 價格이 高騰하게 되면 아마 作付擴大를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팜油생산이 다시 확대될 것 같은데 이는 結果樹면적의 擴大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는 歷年初에 수확되는 南美產의 作物과 그리고 年中 수확되는 熱帶產多年性 作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타이 트한 在庫事情이 長期間에 걸쳐 계속될 危險은 그만큼 감소되고 있다.

이와같은 生産패턴의 變化때문에 그 季節的인 생산에서 年間을 통한 공급의 흐름이 더욱더 連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結果, 1970년대의 特徵이기도 한, 극도로 不安定하고 壞滅的이라고 할 수 있는 價格動向의 리스크도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II. 生 産

1991년의 세계 油脂生産은 2%가 증가한 8,150萬톤에 達할 것으로 豫測되며 油粕生産은 5,310萬톤을 예측된다.

이는 1990년의 生産실적과 거의 같은수준이다. 이들 兩부분의 年度別변화와 絶對

소에 수반된 1991년초에 수확된 大豆作物의 減産때문이다. 더욱이 아르헨티나에서도

先進國의 1991년 油脂生産은, 3,920萬톤으로 豫測되고 있으나 이는 1990년에 比하여 微增에 불과하다. 소련, 東유럽의 생산은 4% 減少(35萬톤)로 되어 있으나 이는 他地域에서의 증산에 의하여 相殺되고 있다.

開發途上國의 油脂생산은 3%增인 4,230萬톤에 달할 것으로 豫측되고 있다. 이는 주로 中國의 增産(19% 增)에 기인된 것이며, 中國의 油糧作物은 전년부터 회복되었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減産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印度의 증산이 이를 相殺하게 되었다.

油粕에 있어서, 先進國의 1991년도 生産은 소련과 東유럽의 9% 감산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比하여 微增한 2,760萬톤에 달할 것으로 豫측되고 있다. 開發途上國의 생산은, 南美的 감산이 中國의 비약적 증산을 相殺하고 극히 적은 減少를 보였다.

1991년도 北美의 생산상황을 살펴보면 油粕에 있어서는 1%增으로 추정되고 있다. 美國의 大豆생산은 전년보다 微減이나 해바라기種實과 綿種實 생산은 캐나다의 油菜生産과 같이 伸張되었다.

西유럽의 1991년도 생산은 1990년에 比하여 1%增하고, 油粕은 6%增으로 추정된다. 이는 EEC域內에서의 作付面積增加에 수반된 油菜와 해바라기種實의 생산이 증가한 것을 反映하고 있다. 이것을 油類에 대하여 살펴보면, 올리브油의 減産에 의하여 大幅 상쇄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1991년도 생산은, 1990년에 比하여 油脂는 6%(970萬톤) 減少이고 油粕은 8%(120萬톤) 減少로 추정되고 있다. 이 減産은 브라질에서의 작부面積감

水準은 각각 장기추세를 대폭 不廻하고 있다.

작부面積이 감소하고 1991년초에 있어서 大豆와 해바라기種實의 수확량은 1990년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멕시코에서도 大豆의 作付面積이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收量도 저하하였기 때문에 生産은 대폭 감소하였다.

1991년도 아시아에서의 油脂생산은 1990년보다 7%(180萬톤) 增加한다고 豫測되고 있다. 이 增産分중 100萬톤은 中國에 기인되고 있는데 中國의 油糧種實의 생산은 劇적으로 回復하여 새로운 기록적 수준에 달하였다. 그리고 60萬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팜의 結實樹面積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兩國 모두 수량의 감소가 豫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팜產品의 생산이 계속 伸張되는데 기인한 것이다. 나머지 약간의 증산분은, 印度에서 기인된 것이고 同國에서는 油菜種實과 綿種實의 증산이 落花生生産의 감산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필리핀에서의 코브라 生産은 1991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印度와 中國은, 아시아지역에 있어 油粕생산에서 압도적으로 큰 比率을 占하고 있고, 中國에서의 20% 증가는 아시아지역 전체의 9%(100萬톤)증가의 대부분을 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油脂생산은 2%增으로 추정되고 있다. 팜油는 증산이 豫상되고 있고 또 튀니지에 있어서 올리브油의 증산은 모로코의 減産을 보충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日氣不順때문에 南아프리카에서의 油糧種實생산, 또 세네갈에서의 落花生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表 1. 世界の 油脂, 油粕類生産豫測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推計	1991 豫測
----- 100萬톤 -----								
食用・비누用油脂								
推定生産量	64.0	69.5	72.7	72.2	77.4	77.6	80.1	81.5
趨勢値(基準 1975~1989)	66.8	69.1	71.3	73.5	75.8	78.0	80.3	82.5
油粕蛋白質								
推定生産量	42.2	47.5	48.6	48.4	52.2	49.9	53.0	53.1
趨勢値(基準 1975~1989)	44.9	46.4	47.8	49.3	50.8	52.2	53.7	55.1

Ⅲ. 輸出可能量

1991년의 輸出可能量 推計値는 실제 수출량의 豫側値가 아니고 1991년의 價格이 1990년 平均수준으로 推移한다고 가정하여, 各 生産國의 国内소비 需要량을 推定한 後 그 해의 生産량에서 輸出에 돌릴 수 있는 數量(즉, 1991年末 現在에 있어서 移越在庫量이 前年과 같이 變化가 無다고 가정함)을 計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1991년에 있어서 油脂의 世界수출가능량은 1990년의 世界 輸出실적을 2%나 下廻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油粕에 대하여 보면 輸出可能量은 거의 1990년의 輸出實績과 같다고 推定된다.

北美의 1991년에 있어서 油脂의 수출가능량은, 1990년의 輸出실적보다도 2%感으로 推定되나, 그 主因은 캐나다의 油菜油 공급 감소에 의한 것이다. 北美에서 綿實油의 수출가능량이 높아져도 그 대부분이 落花生油의 수출가능량의 감소에 의하여 상쇄되고 있다.

1991년에 있어서 油粕의 수출가능량은, 油脂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의 輸出실적보

다도 5%增이 된다고 推定된다. 美國에 있어서 大豆粕 및 綿實粕의 증가는, 캐나다에 있어서 유채粕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西유럽에 있어서 1991년의 油脂 수출가능량은 310萬톤에 미칠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이는 1990년의 輸出실적에 대하여 21%增이다. 이 增加의 대부분은 EEC域內에 있어서 油菜種實 및 海바라기種實의 증산에 기인된 것이다. 同地域에서는 버터 및 올리브油도 前者 정도는 아니나 증산이 되고 있다.

油粕수출량은 훨씬 小規模이나 1991년의 수출가능량은 53萬톤으로 15%增을 나타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1991년도 油脂 수출가능량은, 1990년의 輸出실적에 比하여 14%나 격감한 430萬톤으로, 또 油粕은 10%감소한 1,050萬톤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大豆의 감산, 또 아르헨티나에서의 海바라기種實의 감산에 의한 것이다.

아시아의 1991년도 油粕 수출가능량은, 1990년의 輸出實績에 比해 23% 增加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中國에서는 油菜, 綿實의 생산이 好轉되었기 때문에 油粕의 수출가능량은 격감하였다.

한편, 印度에서는 落花生粕의 수출가능량은 皆無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作物의 증산에 의한 大豆粕 및 油菜粕에 의하여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油脂의 1991년도 수출가능량은 1990년의 수출실적에 比하여 變化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中國에서는 淸化生油의 수출餘력이 대폭 신장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팜油 총 수출가능량은 1990년의 수출가능량은 不廻하고 있으나, 1990년의 수출실적은 在庫를 줄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우린酸油의 수출가능량도 또한 低下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油脂 및 油粕類의 世界輸出實績과 1991년의 輸出可能量の 推計

	世界輸出實績				輸出可能量 ¹⁾
	1987	1988	1989	1990	1991
	----- 100萬噸 -----				
食用·비누用油脂 ²⁾	23.9	25.9	25.3	27.9	27.4
油粕蛋白質 ²⁾	24.3	26.7	24.0	25.0	24.9

註: 1) 在庫變動이 없다고 想定한 그해의 生産에 의한 것.

2) 油(또는 油粕蛋白質)로 換算한 油糧種實 輸出量을 包含함. 生産國에서의 輸出量

IV. 輸入必要量

輸入必要量도 역시 1991년중에 在庫變動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여 評價하고, 消費는 平均가격水準이 1990년과 같다고 가정

하여 推計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991년도 油脂의 世界 輸入必要量은 1990년의 수입실적에 대하여 2%增, 또 油粕은 4%增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삼엄한 外換上의 制限을 받고 있는 몇몇 主要輸入國은 수입필요량의 추계치를 둘러싸고 特定의 不確定要因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制約 때문에 油脂 및 油粕 어느것이나 그들 국가의 輸入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油脂의 1991년도 輸入必要량이 가장 대폭으로 伸張된다고 추정되는 나라는 印度이다. 同國의 수입필요량 115萬톤은 1990년의 輸入實績에 比하여 50%增이다. 1990년의 輸入은 外換의 문제로 인하여 制約을 받고 있었음으로 消費需要의 一部는 在庫를 털어서 충당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그 결과, 國內가격은 기록적 水準까지 高騰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1991년의 1人當 消費의 伸張은 鈍化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 在庫에 의한 공급餘力은 감소되고, 따라서 輸入依存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소련의 수입필요량도 또한, 1991년에는 대폭 신장되어 150萬톤에 達할 것으로 예견되나, 이는 1990년의 수입실적에 대하여 33%의 增加이다. 이는 人口증가에 의한 需要의 증대와 國產유지작물의 감산에 기인한 것이나, 이것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해바라기 種實이다. 이와는 對照적으로 中國에 있어서의 1991년의 수입필요량은, 國內산 작물이 현저하게 回復하게 된 데 수반한 것으로 1990년의 輸入實績에 比하여 30%感의 130萬톤으로 低下하고 있다 (1人當 소비의 伸張率이 鈍化할 것도 考慮에 넣고 있음). 그런데도 印度, 소련, 中國에 의한 수입필요량은 1990년에 있어서의 수입실적을 5% 上廻하고 있고, 이것은 世界의 수입필요량 增加分の 약 50%에 相

當한다.

소비가 대폭적으로 계속 신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必要로 하는 油脂의 輸入量은 1991년에는 1990년의 수입실적을 대폭 上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輸入필요량은 12%증인 125萬톤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방글라데시의 38%증(58萬5千톤에 달함)은 또한, 1990년의 수입량이 비교적 낮았던 것을 反映하고 있고 1990년에 있어서 消費수요량의 一部는 在庫를 털어서 충당하였다.

멕시코의 輸入필요량은 消費가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한편, 국내산 作物이 감소하고 있음으로 8%증이 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EEC의 油脂輸入은 1990년에 격증하였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1991년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추정되며 輸入必要量 705萬톤은 1990년의 輸入實績을 약간 下廻한 것이다.

페르시아灣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國家는 油脂의 주요輸入國이 되어 있고, 1989년의 순수입량은 140萬톤이었으나 이것은 世界貿易의 6%에 상당한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危機는 1990년도 후반기에서 1991년초에 걸쳐 정상적인 需要패턴을 틀어지게 하였다. 正常的인 需要패턴이 어느 정도까지 回復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는 상당한 不確實性이 존재하고 있다.

油粕에 있어서는 소련의 사정이 특히 중요하다. 1984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消費의 급속한 伸張은 40萬톤에서 220萬톤이라고 하는 輸入급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1990년의 消費量은 수입이 146萬톤까지 떨어짐에 따라 低下하였다. 1991년의 소비가 不變이라고 假定한다면, 輸入必要量은 국내의 감산을 反映하여 1990년의 輸入量을 上廻하게 될 것이다(12萬톤 즉, 8%증)

EEC에서는 1990년에 있어서 현저한 소

비의 回復은 鈍化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域內의 生産도 또한 대폭 신장되어 1991년의 輸入필요량은 1,270萬톤에 달한다고 추정되나 이는 1990년도 수입실적에 대하여 겨우 2.5%증에 불과하다.

기타 지역의 경우, 1991년의 수입필요량은 韓國에서는 消費의 伸張이 旺盛하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국내生産이 대폭 低下하기 때문에 각각 1990년의 收入實績을 대폭 上廻하게 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1990년의 대부분을 통하여 蓄産部門은 不況에 빠져 油粕의 소비 및 輸入은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말에 축산부분의 收益性은 개선되었으나, 국내의 作物生産이 감소하고 있음으로 1991년의 輸入필요량은 1990년 이전 水準보다는 떨어지겠지만 大幅 증가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1991년의 日本國의 수입필요량은 1990년의 높은 水準의 輸入量에 비하여 2%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와같은 높은 수준의 年末在庫量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V. 商品別 內譯

商品別로 볼 때 1990/'91년도에 減産이 추정되는 品目は 大豆, 해바라기種實, 코브라, 올리브油이다. 팜產品, 油菜, 綿實은 대폭적인 增産이 예견되고 있으나 落花生の 생산은 微增에 그칠 것으로 예견된다.

세계의 大豆생산은 1990/'92년도에는 1億600萬톤에 달할 것으로 추성되고 있으나 이것은 1989/'90년도에 비하여 2%감이다. 美國에서는 1990년말에 수확된 大豆는 5,230萬톤이었으나 이것은 前年실적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 배경에는 數量增加가 작부면적의 減少를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의 輸出可能量은 大豆의 경우 360萬톤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전년의 수출실적을

약간 下廻하는 정도이다. 한편, 油粕의 수출가능량은 重量으로 하여 4%증인 1,870萬톤이다. 美國에 있어서 1990/'91년도의 大豆在庫는, 1989/'90년도의 495萬톤에서 651萬톤으로 증가하였으므로 1990/'91년도에는 세계의 輸入需要를 充當하기 위해서는 在庫를 털어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 결과, 1990/'91년도에 있어서 美國의 수출실적은 今年度産에 의한 추정 수출가능량을 超過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1년 2월 現在의 정부豫測에 의하면 1990/'91년도의 大豆在庫량은 재차 증가하여 871萬톤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收益性이 보다 높은 곡물에의 轉作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兩國을 합친 작부면적은 약 200萬ha (12%)가 減少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1년 초에 수확된 大豆는 브라질에서는 270萬톤이 감소한 1,730萬톤으로, 또한 아르헨티나에서는 50萬톤이 감소한 1,050萬톤으로 떨어질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1991년에 있어서 兩國을 합친 총 輸出可能량은 전년실적과 비교하여 大豆油에 있어서는 20%感, 또한 大豆粕에 있어서는 12%感이 되었다.

총체적으로 보면 1991년에 있어서 세계의 수출가능량은 大豆油에 있어서 650萬톤, 大豆粕에 있어서는 4,170萬톤(生産物重量)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大豆油가 9%感, 大豆粕은 3%感を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소幅의 大小는 大豆油를 수출하지 않은 印度와 中國에서 大豆粕의 수출가능량이 激增한 것을 反映한 것이다.

1990/'91년도에 있어서 세계의 해바라기 種實생산은 微減하여 2,170萬톤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상당한 面積이 한층 收益性이 높은 作物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1991년초의 수확량은 9%減인 350萬톤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된

다. 소련에서의 作付面積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사이에 대폭 伸張되었으나, 이 傾向은 1990년에는 멈추고 더욱이 減收때문에 해바라기 種實의 생산은 전년대비 8%가 감소되었다. 東유럽에서도 旱魃때문에 減産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凶作이었고 EEC전체의 생산은 作付面積增加 때문에 旱魃로 감소되었던 1989년의 수준보다 14%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美國에서도 作付面積은 증가하고 더욱이 增收가 되었기 때문에 生産은 29%증인 100萬톤을 돌파하였다. 中國의 생산은 거의 기록적인 수준이 되어 150萬톤(전년대비 41%증)가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0/'91년도에 있어서 해바라기 種實粕의 세계 輸出可能량은 240萬톤으로 추정되고 전년의 수출실적 대비 1%증이다. 이것은 프랑스와 美國에서의 증산이 아르헨티나에서의 減産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바라기油의 세계 수출可能량은 7%減인 220萬톤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해바라기油의 주요 輸出地域인 東유럽에서의 減産을 反映한 것이다.

1990/'91년도에 있어서 세계의 올리브油 생산은 11%減인 170萬톤으로 떨어질 것으로 豫測된다. 이탈리아에서는 旱魃때문에 生産은 전년의 58.3萬톤에서 27萬톤으로 떨어지고, 이 減産량은 다른 주요生産國에서의 증산분보다 더 클 것이다. IOOC의 豫測에 의하면 세계의 輸出은 1991년에 伸張되고 결과적으로 세계의 在庫량은 年內에 대폭 減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991년에 있어서의 라우린酸油의 세계生産은, 1990년에 대비하여 거의 變化가 없다고 豫測되고 있다. 필리핀에 있어서는, 年初의 降水量不足으로 코부라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이것은 桴核의 증산에 의하여 메

꾸어 지고 있다. 그러나 世界의 수출可能量은 輸出國에서의 소비가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4%減의 240萬톤으로 떨어진다고 추정되고 있다.

세계의 油菜생산은 증산이 예견되는 作物중의 하나로서 1990/'91년도에는 2,510萬톤(전년대비 13%증)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90년후반기에 있어서 EEC의 收穫量은 590萬톤(18%증)으로 추정되나 이것은 高價이기 때문에 특히 독일과 英國의 작부면적이 증가한데서 연유된다. 中國에서도 支持價格의 引上으로 작부면적이 증가하였고 더욱이 그것이 單位面積當 收量의 回復과 겹쳐져서 생산은 전년대비 27%증이 되었다.

캐나다의 생산은 9%의 作付面積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7%증이 되고 있다.

印度의 1991년초의 수확량은 480萬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것은 高價格과 극히 순조로운 기후에 자극된 작부면적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16%증이다. 이와같은 광역에 걸친 증산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는 例外적인 減反과 減收때문에 24%의 생산減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91년도 유채粕의 세계 輸出可能量은 1989/'90년도의 수출實績에 대하여 18%증인 420萬톤으로 추계되는데 이것은 주로 中國의 수출가능량이 100萬톤으로 3배나 증가된 것을 反映하고 있다.

프랑스와 印度에서도 수출가능량은 높아지고 있고, 또한 덴마크에서도 5년만에 輸出用 잉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1991년도 輸出可能량은 재고량을 대폭 털어서 증가시킨 1990년의 수출실적을 下廻하고 있다. 폴란드의 수출가능량은 減産때문에 低下하고 있다.

1990/'91년도의 유채油의 세계 輸出可能량은 250萬톤으로 前年の 수출실적 보다

增加되었으나 그 증가율은 4% 정도이다. 이것은 中國이 油菜粕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位置를 占하고 있으나, 유채油의 수출국까지는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

1990/'91년도에 있어서 세계의 綿實생산도 대폭적인 回復이 豫測된다(전년대비 10%증의 3,450萬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많은 국가의 綿花作付가 린드의 高價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美國이 綿實 생산은 30%증이 되고 있으나 主因은 作付面積의 증가이다. 한편, 中國의 生産은 18%증이며 그 대부분이 收量增加에 기인한 것이다.

1990/'91년도의 綿實油의 세계 수출가능량은 51萬톤으로 추정되나 그 17%증의 대부분이 美國에 기인하는 것이다.

綿實粕의 輸出可能량은 50%로 대폭 증가하여 200萬톤에 이르고 있다. 이 증가의 대부분이 中國에 기인한 것으로서 中國은 綿實粕의 一大輸出國이나 綿實油는 수출하고 있지 않다. 美國의 수출가능량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1991년의 세계의 枹油(야자)는 다시 6%가 증가한 1,190萬톤에 달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結果樹面積이 계속 증가하여 收量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까지의 강수량不足이 收量사이클의 밑바닥과 겹쳐졌기 때문이며, 또 인도네시아는 어린나무로 低收量의 枹樹가 結果樹 總면적중 더욱더 큰 比率를 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減收가 예견된다.

1991년에 있어서 세계의 輸出可能량은 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수출實績보다도 3% 減少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의 輸出實績이 증가한 것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兩國에서 在庫가

크게 減少한데 연유되며 兩國이 세계무역에서 占하는 比率은 합하여 95%를 占하고 있다.

1990/'91년도에 있어서 세계의 落花生(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것)생산은 2,310萬톤(전년대비 1%증)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中國의 생산이 대폭 回復(23%)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他地域에서의 상당한 減産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印度에서는 1990년말에 수확된 「夏作物」의 경우, 降雨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약 100萬톤(11%)이란 최대 減産이 豫想되고 있다.

美國과 세네갈에서는 收量減少로 전년보다 각각 10%, 14%의 감산이 예상된다.

1990/'91년도에 있어서 落花生油의 세계 수출가능량은 77萬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세계 輸出實績의 14%증이다. 더욱이 中國에 있어서 輸出可能量은 거의 2배가 되고 있는 美國과 세네갈 兩國에 있어서 減産을 補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印度의 낙화생은 낙화생粕의 輸出만을 의미하는데 1990/'91년도에 輸出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國內消費의 감소와 결부된 것이다. 낙화생粕의 세계수출가능량은 8%減인 93萬7千톤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991년에 있어서 버티의 世界生産은 1990년보다 1%증으로 豫側하고 있다. EEC輸出國에 있어서 在庫量 및 생산은 근년에 激減되다가 上昇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91년에 있어서 세계의 輸出可能量은 1990년의 수출실적을 上廻할 것으로 추정된다.

豚脂, 牛脂 및 魚油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추정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1년의 魚粉에 대한 세계 수출가능량은

1990년의 수출실적에 대하여 5%減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1991년의 수출실적은 輸出國에서 在庫를 헐었기 때문에 높아졌다.

위 세가지 생산豫測은 아직 대폭 수정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南半球의 수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 수출가능량, 수입필요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91년초에 수확되고 있는 것으로서 브라질의 大豆, 아르헨티나의 해바라기種實, 또 印度의 「라비(주로 落花生과 油菜)」의 最終生産量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상기 이외의 불확실요인은 年中 生産되는 코코넛과 오일용 팜의 생산량이다.

VI. 消費, 在庫量 및 短期展望

1991년의 油脂는 증산이 豫測되고 있으나 만약 年間을 통하여 재고수준이 變動하지 않는다면, 이 增産에 의하여 소비수준은 겨우 1.4% 伸張될 것 같고 이 伸張率은 世界人口의 伸張率을 下廻하는 것이다. 이에 比하여 1990년에 있어서 추정消費量의 伸張率은 2.6%이고 또 장기추세의 伸張은 年率 3%를 약간 下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1년의 세계 經濟成長은 계속하여 鈍化될 전망이고 이는 곧 消費의 伸張이 鈍化될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伸張이 1.4%까지 低下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1991년중에 在庫가 다시 감소될 것이 전망되며 그와 같은 감소의 餘地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의 要因에 의하여 1991년의 世界の 油脂需要의 전망은 평상시 이상의 不確實性을 가지고 있다. 페르시아灣 地域에 있어서 危機의 영향도 또한, 이들

의 要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正常적인 需要패턴이 얼마만큼 빠르게, 또 어느정도 회복하는가에 대하여 상당한 不確實性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上記 이외에도 1991년에 景氣가 새로이 上向으로 轉換하게 될 것인가 또 그 時期가 언제인가를 둘러싸고 不確實性이 존재하고 있다. 主要因은 外換上의 制約이 어느 程度 수입국의 소비를 계속 制限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外國換의 制限은 최근 油脂 및 油粕의 主要輸入國의

一部에서 더욱더 加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 수입국에서는 부족한 外貨나 輸入信用을 서로 결합하고 있는 輸入니즈(needs)의 사이에서 割當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는 정도의 差는 있으나 방글라데시, 中國, 印度, 파키스탄, 소련등의 主要輸入國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國家를 總合하면 近年 油脂의 世界消費의 3분의 1, 또 世界輸入의 4분의 1을 占하고 있다.

表 3. 世界 油脂, 油粕類의 需給바란스推移¹⁾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推計	1991 豫測
----- 100萬噸 -----										
食用·비누用油脂										
期初在庫(一部)	6.7	6.2	6.9	5.6	7.2	8.8	7.7	8.9 ²⁾	8.2 ²⁾	7.9 ²⁾
生 産	62.2	65.1	64.0	69.5	72.7	72.2	77.4	77.6	80.1	81.5
供給可能量	68.9	71.3	70.9	75.1	79.9	81.0	85.1	86.5	88.3	89.4
外形上 消費	62.7	64.4	65.3	67.9	71.1	73.3	76.2	78.3	80.4	81.5 ³⁾
期末在庫(一部)	6.2	6.9	5.6	7.2	8.8	7.7	8.9 ²⁾	8.2 ²⁾	7.9 ²⁾	
油粕類(蛋白質換算)										
期初在庫(一部)	5.0	4.5	5.4	3.5	5.0	7.3	6.1	5.3	4.3	4.6
生 産	42.7	45.3	42.2	47.5	48.6	48.4	52.2	49.9	53.0	53.1
供給可能量	47.7	49.8	47.6	51.0	53.6	55.7	58.3	55.2	57.3	57.7
外形上 消費	43.2	44.4	44.1	46.0	46.3	49.6	53.0	50.9	52.7	53.1 ³⁾
期末在庫(一部)	4.5	5.4	3.5	5.0	7.3	6.1	5.3	4.3	4.6	

註: 1) 이들의 需給바란스는 年次別變化의 크기의 程度와 方向에 關한 限, 有效라고 認定된다. 다만, 推計值의 正確함은, 在庫데이터가 不完全한 것임과 同時에 國, 商品에 따른 각각의 事情에서 期間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制約되는 것이 되고 있다.

2) 既知의 移越在庫量+未詳의 在庫量의 變化를 考慮에 넣은 것.

3) 在庫變動 없는 것으로 假定하여, 消費를 위하여 利用되는 것.

1991년에는 세계에 있어서 油粕의 豫想 生産量을 근거로 해서 在庫變動이 없다면 세계의 油粕소비량은 극히 적은 伸張이 可

能할 것이다. 그러나 1991년의 세계消費量의 伸張은 1990년에 기록되 4%의 伸張에 이어서 그다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油脂의 경우와 같이 1991년중에 약간이기는 하나 在庫를 헐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餘地는 1990년 美國의 大豆在庫의 累增으로 충당될 것이다.

主要輸出國間에서는 EEC와 美國에서, 소비의 신장은 얼마간 鈍化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1990년에 확립된 높은 수준이상으로 給餌率을 引上할 餘地가 더욱더 限定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수요 전망을 둘러싸고 큰 不確實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飼料중의 蛋白質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은 外貨나 수입신용의 不足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와 妥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년 소련 한 나라 만으로도 油粕의 世界소비와 世界수입의 20%이상을 占하였다.

오는 1991/'92년도는 전기 두 상품(油脂·油粕)에 대하여 1991년중에 減少가 전망된 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期初在庫로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生育기간중에 不順한 기후가 1991년후반에 수확예정인 北半球產작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在庫量의 감소에 의하여 價格은 上向추세를 타고, 1991/'92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不安定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들 作物의 생산 전망이야 말로, 1991/'92년도의 世界 全體生産量이 世界の 消費

니즈를 충족하고 또 적정한 世界在庫를 유지하는데 필요한만큼 충분히 增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이는 最初의 지침이 될 것이다.

초기의 徵候는, 특히 EEC域內에 있어서 油菜작부면적의 대폭 增加에 의한생산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綿花 린트는 高價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綿實의 작부가 다시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美國에서는 1991년 1월에 실시된 作付意向에 관한 公式調査에 의하여 18%增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작년의 불순한 氣候와는 逆으로 기후가 正常을 것이라고 假定하면 印度, 소련을 포함하여 여러나라에서 增産이 實現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中國은 작년의 기록을 다시 更新하는데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美國의 作付意向에 依하면 大豆의 작부면적增加는 다른 代替作物에 대하여 大豆의 相對價格이 不利해짐에 따라 新農業法의 規定이 한층 彈力的인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限界的인 增加가 될 것을 示唆하고 있다.

이 政策은 그 대신에 低位作物의 酌婦를 자극하였고 따라서 海바라기種實의 작부면적은 전년대비 36%增으로 나타났다.